

홍산대첩[鴻山大捷]

백전노장 최영, 왜구 격퇴를 위해 나섰다

1376년(우왕 2) ~ 미상

1 개요

홍산대첩은 1376년(우왕 2) 7월에 최영(崔瑩)이 홍산(鴻山)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친 전투이다. 고려말 왜구를 상대로 고려가 큰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전투로 손꼽힌다. 적군인 왜구들의 기억 속에 최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될 정도로 이 전투에서 최영은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2 왜구들이 금강 유역을 횡행하며 약탈을 일삼다

우왕대는 왜구가 가장 극성을 부린 시기였다. 왜구는 호시탐탐 고려의 수도 개경을 노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양광도 연안을 공격하였고, 1376년에는 금강(錦江)을 따라 올라오며 인접한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7월에 왜구는 부여(扶餘)를 약탈하고 공주(公州)로 향하였다. 부여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길목의 고개 정현(鼎峴)에서 목사(牧使) 김사혁(金斯革)이 이들을 저지하고자 맞서 싸웠으나 패전하여 결국 공주까지 함락되고 말았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당시 양광도원수(楊廣道元帥)를 역임하던 박인계(朴仁桂)는 전해에 양광도순문사로 부임하자마자 왜선 2척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으며, 평소에 민심을 얻고 어진 장수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공주의 속현이면서 공주가 공격받을 때 구원하러 오지 않은 죄를 물어 회덕현(懷德縣)의 감무(監務)인 서천부(徐天富)를 참수하였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고 박인계는 왜구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침략은 계속 이어졌다. 왜구 무리는 석성(石城)을 노략질하고 더 내륙으로 들어가 연산현(連山縣)의 개태사(開泰寺)로 달려갔다.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제압하고 창건하였으며, 고려 초부터 지역 거점 사찰로 기능한 큰 사찰이었다. 특히 홍건적 침입 이후에는 개경의 봉은사(奉恩

寺)를 대신하여 태조의 진영을 봉안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이었다. 이같은 위상과 규모를 생각하면, 개태사는 왜구들이 약탈 대상으로 삼기에 너무도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박인계는 개태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힘껏 싸웠으나 말에서 떨어져 전사하고 말았다. 박인계를 죽인 왜구들의 손에 떨어진 개태사는 철저히 도륙되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 개경으로 전해져 최영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3 백발의 최영이 출전을 자청하다

개태사 소식을 들은 최영은 “신의 몸은 비록 늙었으나 뜻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경성을 지키고자 할 따름이니, 청하건대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빨리 가서 그들을 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왜구를 칠 것을 자청하였다. 우왕과 여러 장수들은 최영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만류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가 당시 61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영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거듭 청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출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득하였다. 첫째, 지금의 때를 잃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도모하기 어렵다. 둘째, 다른 사람이 장수가 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셋째, 군사들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아 쓸 수 없다. 우왕이 이 뜻을 꺾지 못하고 출정을 허락하자 최영은 잠도 자지 않고 그 길로 바로 양광도로 떠났다. [관련사료](#) 당시 왜구는 노략자를 배에 태우고 장차 돌아가려는 것처럼 내보이면서 물레 정예 수백명을 보내 곳곳에서 노략질을 자행하고 있었다.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산에 이른 왜구들의 기세는 한껏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 이때 최영이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최공철(崔公哲), 조전원수(助戰元帥) 강영(康永), 병마사(兵馬使) 박수년(朴壽年) 등과 함께 홍산에 다다랐다.

그들의 전장이 되었던 곳은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지 길 하나만 통할 수 있는 험하고 좁은 지형이었다. 여러 장수들이 겁을 내어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최영이 용맹하게 선두로 돌진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숲속에 숨어있던 적이 쏜 화살이 최영의 입술에 맞아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최영은 당황하지 않고 적을 쏘아 맞춘 이후에야 화살을 뽑았다고 한다. 그렇게 최영을 중심으로 한 고려군은 더욱 치열하게 싸워 적을 크게 패배시키고 거의 섬멸하였다. 그야말로 고려군의 통쾌한 승리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4 황제의 사신을 맞이하듯 개선장군 최영을 환영하다

승전 소식을 알리자 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최영에게 옷, 술, 안마를 하사하여 포상하고 의원을 보내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였다. 그리고 8월에 개경으로 개선하는 최영을 성대한 예로 맞이하였다. 이때의 예식이 마치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예와 같았다고 하니 당시 고려 조정에서 얼마나 이 승리를 반기고 높이 평가하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 전공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고려 조정에서 심리적으로 더욱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홍산에서 전투가 있었을 그 무렵, 개경에는 왜구가 장차 도성을 침범할 것이라든지, 적의 장수가 이미 송악산에 올랐다더라는 소문이 돌아 분위기가 몹시 흥흥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밤중에 방리군(坊里軍)을 징발하여 성을 지키게 하고, 또 승군(僧軍)을 징발하여 요해처를 지키게 하였으니 개경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것이다.

[관련사료](#) 이렇게 동요하며 술렁이던 민심에 최영이 가져다 준 빛나는 승전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는가?

9월에 홍산에서의 전공을 논하여 최영을 시중(侍中)에 제수하려고 하였는데 최영이 말하기를, “시중이 되면 가벼이 지방으로 나갈 수 없으니, 왜구가 평정된 이후에 받겠습니다.”라며 굳게 거절하였다. 이에 그를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으로 봉하고 나머지 군사들도 차등있게 포상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5 홍산대첩의 기억

“두려워할 자는 오직 백발의 최 만호(崔 萬戶)뿐이다. 지난날 홍산의 전투에서 최 만호가 이르면 휘하의 병졸들이 앞을 다투어 말을 달려 우리 무리들을 차고 짓밟았은즉,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관련사료](#) 홍산에서 최영이 보여준 백발 노장의 용맹무쌍한 모습은 왜구들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던 듯하다. 홍산대첩이 일어났던 다음 해에 고려를 침략한 왜구들이 했던 말이다. 왜구들의 기억에 최영이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홍산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홍산대첩의 명성에 비하여 전투의 구체적인 규모는 알기가 어렵다. 우왕이 개선한 최영에게 적의 규모를 묻자, 최영이 많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적이 만약 많았다면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관련사료](#) 단순히 최영이 겸양의 뜻으로 답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소위 ‘대첩’으로 불리는 진포대첩이나 황산대첩 등 다른 전투에 비하여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당시 양측 병력 규모나 고려군이 거둔 전과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영이 홍산대첩에서 거둔 승리는 당시 고려가 겪고 있던 급박한 군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여 주는 중요한 전적(戰績)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금강 유역을 비롯한 양광도 일대의 왜구 세력은 일시적이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1379년(우왕 5)에 우왕은 홍산에서 최영이 왜적의 진을 격파하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 공로를 영원히 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색(李穡)에게 이에 대한 찬(讚)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 글이 『동문선(東文選)』과 이색의 문집인 『목은집(牧隱集)』에 남아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현재 홍산의 전투 장소로 지정되는 장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태봉산성(胎峰山城)이며 산성 내부에 조성되어 있는 태봉산 체육공원에 홍산대첩비가 세워져 있다. 한편 최근에는 홍산 전투의 전장이 태봉산이 아니라 비홍산(飛鴻山)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